



151-744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Tel : 02-880-7241
Fax : 02-871-5974
<http://ee.snu.ac.kr>

Designed by 05학번 김영빈, 08학번 정동주

snu ECE LIFE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소식지
2012 상반기

CONTENTS

02-03	교수 인사말
04-05	교수 인터뷰
06-07	대학원 탐방
08-09	멘토 인터뷰
10-11	전공하나
12	전자전
13	축구대회
14	영화감상회
15	우수논문상
16	전공학습도우미
17	교환학생
18-19	장학금
20-21	시설 홍보
22	기자단 후기
23	커버스토리



이광복 학부장, 이병호 교무부학부장



이광복 학부장

“ 여러분들이 창조적 리더로 성장하여
우리 사회의 핵심 인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

2009년 하반기에 시작한 뉴스레터가 벌써 여섯 번째 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뉴스레터가 우리 학부 및 학생들의 소식을 전하는 매체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서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여러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매체로써 계속 발전해 나가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 여러분들에게는 즐거운 대학생활을 만들어가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스스로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는 기쁨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삶의 폭과 깊이를 더하고, 현재와 미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생의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들이 창조적 리더로 성장하여 우리 사회의 핵심 인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21세기 지식정보 사회를 맞이하여 우리 학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부가 계속 발전하여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2012년은 우리 학부가 전기·정보공학부로 명칭이 변경되는 만큼 더욱 새롭고 활기차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저 또한 학부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병호 교무부학부장

“ 다양한 커리큘럼 속에서
흥미로운 분야들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

2011년 9월부터 2년간 교무담당 부학부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는 뛰어난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교수님들도 열성적으로 강의하시어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 전통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커리큘럼 속에서 흥미로운 분야들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미래를 잘 준비해가도록 하세요. 꼭 교과목 공부 뿐 아니라, 대학생활에서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기를 바라고, 인문, 사회 지식도 꾸준히 넓혀가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보직교수님들이나 학부사무실 교무 담당 선생님들을 찾아주세요.

박남규 학생부학부장, 박세웅 학생센터장



박남규 학생부학부장

“ 모든 교수님들의 상담창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제안을 기대합니다. ”

대학에서의 학생 여러분의 시간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전공에 대한 학문적인 소양을 넓히는 동시에, 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시기이며, 또한 다양한 교우관계 및 사람간의 사랑에 대한 정의를 넓혀가는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젊은 여러분의 활기찬 심장 박동수만큼이나, 그 시간이나 삶의 밀도가 진하고도 뜨거운 기간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선택이 가능한 시기이고, 활발한 탐색이 요구되며, 또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조바심도 많은 시간일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학생부학부장을 담당하게 되어, 이미 선임 부학부장님들께서 만들어 놓으신 좋은 프로그램들, 그리고 일년 전에 출범하여 매우 활발히 가동되기 시작한 e생생 등과 연계하여 학부생 여러분이 가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고민을 더 많이 듣고 이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형태의 현재 지원방식에 더하여서, 학생들에게 도전을 시도하여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볼까 합니다. e생생과 제 연구실, 그리고 모든 교수님들의 상담창구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학생들의 많은 input에서 좋은 output을 기대합니다. 학생 여러분의 다양한 제안을 기대합니다.



박세웅 학생센터장

“ 건강한 자신의 자아상을 세워가는 데
e생생이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뉴스레터를 통해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0년 6월에 e생생은 서울대에서 유일하게 학부 자체적으로 학생을 지원하는 센터로서 설립되었습니다. 초대 센터장 김용권 교수님에 이어서 1월부터 제가 센터를 맡게 되었습니다. 'e생생'은 전기·정보공학부의 'e'와 학생과 선생님이 서로 신뢰하고 상생하여 생생하게 생활하자는 의미의 '생생(生生)'을 합한 것입니다. 'e생생'은 학생들의 학습에 관한 고민과 상담, 대학 생활과 심리에 관한 상담, 진로에 대한 정보와 상담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전공 튜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직군의 동문들로 구성된 멘토링 서비스 등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찾아가도록 돕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치열한 경쟁 속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무엇을 해도 잘할 것 같았지만 대학에 와서는 쉽지 않은 현실에 직면합니다. 1학년이 지나면 자신의 성적을 보면서 자신의 위치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성적이 모든 것이 아니라 하지만, 경쟁에서 처지는 것에 대한 염려는 생각보다 크게 다가옵니다. 대학생활을 즐겁게 하고 싶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이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학부의 교과과정도 상대적으로 어려운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더욱 힘든 시간을 갖게 됩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은 융합의 시대라 하여 전공과 인문학 등을 폭넓게 익혀야 하는 학습 부담이 배가됩니다. 부자연스런 교우관계, 선후배 관계, 동아리 활동 등으로 여러 스트레스가 더해집니다. 우리 학부 학생들이 'e생생'을 통해 자신의 꿈을 키우고 학창시절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건강한 자신의 자아상을 세워가는 데 e생생이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수 인터뷰



음향학
성평모 교수님

Q. 교수님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나를 소개하자면, 첫 번째로 (아마도) 우리나라 최초로 정통 음향학을 공부하고 귀국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음향학은 소리의 과학으로, 인접분야가 많고 응용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이전에 짧은 기간 외국에서 교환교수 등으로 음향학 관련 연구를 수행했던 선배 학자들은 있었겠지만 오로지 주전공을 음향학으로 공부하고 귀국한 사람은 내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아마추어 음악가입니다. 1983년 독일에서 귀국하여 당시 전자공학과에 부임한 지 몇 학기 후부터 음악대학의 요청에 의해 지난 25여년 간 음악음향학을 강의하였습니다. 음악음향학은 소리에 대한 약간의 기초 원리 이외에는 주로 여러 가지 악기의 동작원리를 음향학적으로 살펴보는 과목인데, 필요에 의해서 트럼펫, 트롬본, 클라리넷, 색소폰 등의 관악기를 교육기자재 차원에서 자비로 구입하여 강의 시간에 간단한 음계를 것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클라리넷, 색소폰 등 목관악기를 다루는 아마추어 음악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내가 주도하여 일반인 동호인들을 모아 아마추어 색소폰 앙상블을 조직하여 3년간 단장으로 활동한 바 있고, 현재는 우리나라 제일의 일반인 관악 연주단체인 젤로스원드 오케스트라에서 베이스 클라리넷을 불고 있으며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Q. 교수님께서 왜 전기공학을 선택해서 공부하셨고 어떤 부분들을 재미있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내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입학한 것은 1965년인데, 그 당시에는 전기공학부가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와 2개 학과로 나뉘어져 있었고 훨씬 후에 제어계측공학과가 신설되어 3개의 독립된 학과가 존재하다가 1990년대에 전기공학부로 통합되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서울대 전자공학과가 전국 제일의 인기 학과로 우수한 자연계열 고교생들이 선호하는 학과였습니다. 나는 사실은 물리학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당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공대 선호 풍조와 전자공학과와 인기 때문에 전자공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전자공학을 공부하면서 물리학을 기반으로 한 공학이기 때문에 두루두루 재미있게 공부했으며, 독일 아헨공대로 유학 가서는 음향학에 몰두하여 정말로 공부와 연구가 재미있고 보람있었습니다.

Q. 교수생활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있으시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1980년대 중반 쯤, 아직도 전자공학과와 최연소 교수일 때 4학년 졸업여행을 함께 갔던 때 일입니다. 지금 전기공학부 학생들은 숫자도 늘고 다양한 학생들이 있는 편이지만, 당시 전자공학과는 입학정원 40명이 거의 고등학교에서 전교 수석을 하는 학생들로 채워지는 때였습니다. 수학여행 중에도 모두 재미없이 조용히만 지내는 것이 못마땅했던 나는 어느 날 저녁 넓은 마당에 장작으로 불을 피우게 하고 막걸리 두 양동이를 사오게 하여 모든 학생들과 1:1로 술을 주고받았습니다. 물론 다음 날 기차로 이동하는데 속이 메스꺼워서 토하려 하니까, 바로 앞에 앉아 있던 당시 이덕수 조교가

“자네들은 마약중독자나 정신병자가 되지 않는 이상 굶어 죽으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즉, 먹고 사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각자가 원대한 이상과 포부를 가지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라!”

등산 모자를 열린 벗어 모두 받아서 화장실에 가서 처리하고 모자를 찬물에 빨아 오면서도 기분 나쁜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 생각납니다. 이덕수 군은 그 당시 내 연구실의 석사과정 학생이었으며, 우리 연구실에서 박사까지 마치고 현재는 디지털 오디오 파워앰프 칩을 만드는 네오피델리티 사를 설립하여 사장으로 있으며, 이 분야 세계 제일의 회사로 키운 인물입니다.

Q. 교수생활을 은퇴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그리고 은퇴하신 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1983년 7월에 부임해서 정년퇴임 하는 2012년 2월 말이면 28년 7개월 동안 교수생활을 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30년 가까이 교수생활을 하면서 관악산 중턱의 좋은 자연환경 속에서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이해하는 똑똑한 학생들을 기르며, 연구하며 함께 지냈던 점이 내 인생에 큰 보람이며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Q. 약력을 보니 해병대에 자원하여 현역군무를 하셨던데, 무슨 계기로 해병대에 지원하셨으며 해병대 생활이 교수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는 남자가 군대에 갔다오지 않으면 취직이나 유학 등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재학 중 군 복무를 필하고 싶었고, 답답한 모범생 스타일의 성격을 스스로 좀 바꾸고 싶어서 일부러 가장 힘들다는 해병대를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해병대 생활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사회 각 계층에서 들어온 젊은이들끼리 진정한 전우애를 배우고 나눌 수 있었던 것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지금도 나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와도 다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이 해병대가 나에게 준 선물입니다. 또한 역경을 당했을 때도 인내하는 힘을 해병대에서 기를 수 있었습니다.

Q. 전기공학을 공부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학과공부가 쉽지 않아서 방황하는 후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후배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학생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 한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과거 전자공학과 시절에는 내가 늘 학생들에게 “자네들은 마약중독자나 정신병자가 되지 않는 이상 굶어 죽으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즉, 먹고 사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각자가 원대한 이상과 포부를 가지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현재 전기공학부 후배들에게는 위 이야기의 전반부는 100% 보장할 수 없겠지만,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해 주고 싶습니다.



연구실 소개

전력전자 연구실(EEPEL)은 설승기 교수님의 지도 아래 전동기 구동 및 전력변환 장치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전동기 구동 기술은 모터를 이용하는 기계 장치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기술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어컨부터 산업에서 사용하는 거대한 기계 장치까지 넓은 분야에 걸쳐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전기자동차를 제어하는 기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전력변환 장치는 풍력발전이나 태양광 발전과 같은 신재생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전력변환 장치를 통하여 신재생 발전으로 얻은 에너지를 전력 계통에 연계할 수 있고 각종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구실은 혼자서 열심히 하기보다는 다 함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배에게 물어보고, 후배가 물어보는 것은 공부해서라도 가르쳐 주어야' 는 교수님의 말씀 아래, 서로가 같이 의논하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친목활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때때로 소풍을 가기도 합니다. 교수님과 함께 신년회를 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고, 격년으로 홈커밍데이를 열어 졸업생과의 친목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활동들 덕분에 우리 연구실은 마치 가족같이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Q 설승기 교수님 인터뷰

1. 전력전자 연구실에 관하여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연구실에서는 전동기의 제어에 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력용 반도체 소자를 비롯한 전자회로를 이용해서 전동기나 발전기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여 기계적인 동력 혹은 전기적인 에너지를 편리하고 효율이 높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전에는 실제 움직이는 기계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동적인 기계뿐만 아니라 단지 전력변환 장치로서 전력계통과 연결해서 또 다른 형태로 전력을 변환하는 장치들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겠고 실제로 우리 연구실에서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력용 반도체를 이용해서 전력을 변환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모두 다룬다고 보면 됩니다.

2. 현재 전력전자 연구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 발전된 전기가 계통에 연결되어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전력변환장치가 필요한데 그 변환장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에 들어가는 전동기의 새로운 제어방법으로서 가변속 전동기 구동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전동기의 효율이 좋아지고 부품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시스템 에어컨을 아주 많이 생산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에어컨 분야에서 앞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데 이 연구가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에 점점적으로 하고 있는 연구 중의 하나는 군함에 대한 연구입니다. 군함의 작동원리를 보면 예전에는 엔진을 돌리고 엔진이 다시 프로펠러를 직접 돌려서 추진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앞으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발전된 전기를 적절히 변환하고 그 전기로 전동기를 돌려서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전기추진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기본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군이 전기추진선박을 만들 때 배를 만드는 기준도 함께 작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는 국가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 교수님이 선호하는 학생상 또는 연구실 학생을 선발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선호하는 학생상이라. 나는 아주 반짝거리는 학생을 좋아합니다. 반짝거린다는 것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보다 창의력이 있는 학생을 선호합니다. 사실 이런 아주 판단하기가 힘들고 입증하기도 힘든 것이기는 해요.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창의력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가끔씩 창의력 있는 학생을 연구실에 뽑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성적보다 창의력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성적도 어느 정도 중요하고 실험을 끈기있게 하기 위한 체력도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4. 뉴스레터를 통해서 전기공학부 학생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일단 우리 전기공학부에 온 것을 축하합니다. 학부생활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즐기세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누구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요. 나 자신도 학부시절 미래에 불안감은 항상 있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현실을 바꾸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4-5년 공부해서 졸업해도 별 볼일 없어 보인다고 전공을 다른 것으로 바꾼다고 해도 불안함은 별로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는 아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의전과 치전으로 많이 가는데, 한때는 그렇게 학생들이 선호하던 한의대가 지금은 어떤 현실에 놓여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렇듯이 지금은 의전과 치전을 그렇게 열심히 간다지만 그것이 과연 20년 후에도 인생에서 보람을 느낄 만한 직업이 될 것인가 하는 점에서는 스스로 잘 판단해 보길 바랍니다.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자기 분야를 즐기면서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은 한두명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분야마다 수많은 성공이 있고 그리고 그 성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너무 미래에 대해서 초조해 하지 말고 주어진 현재를 즐기면서 인생을 충실히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꼭 말해주고 싶네요.

Q 대학원생 인터뷰

Q.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게 된 동기나 배경이 궁금합니다.

이학준 저는 본래 학부 때엔 크게 대학원 진학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막연하게나마 빨리 졸업해서 취업해야겠다는 생각을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는 병역 특례로 학부 때 회사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후, 1년 정도가 지났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때 문득 '무언가'를 제대로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무언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한낱 소모품밖에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복학하여 대학원 진학을 위해 연구실을 알아 보던 중 '전력전자 연구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만해도 제 친구들은 반도체쪽이나 통신쪽으로 진학을 하던 때였지만 저는 큰 용량의 전기를 다루보고 싶었습니다. 마침 학부 때부터의 지도교수님도 설승기 교수님이셨던 것도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학부 재학시절의 막연했던 '무언가'가 박사과정까지 오게 되면서 '전력전자'로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권용철 구체적인 동기를 말하기는 힘들지만, 어렸을 때부터 자연과학을 좋아했고 연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교 진학 후에는 전기공학부에서 보낸 시간 동안 전기공학이 제 적성에 잘 맞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전기공학이라는 분야에 계속 몸담고 싶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4학년 때 연구실 설명회를 참석하게 되었고, 전력전자 분야를 알게 되어 많은 고민 끝에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정재정 저는 학부 졸업 후 취업을 할 생각이었고, 미리 회사 경험을 할 겸해서 학부 3학년을 마친 뒤,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대체복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생활을 하면서 느낀바, 특정 분야에서 나만의 강점을 가지고 싶었고, 저의 결론은 대학원 진학이었습니다. 대학원 진학을 결정함과 동시에 관심이 많았던 전기에너지분야를 생각했고, 4학년으로 복학 후 저희 분야 관련 수업들을 들으며 대학원 진학을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전력전자 연구실에서 석사과정에 있고,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Q. 연구실만의 특색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연구실의 장점을 알려주세요.

이학준 산업체와 밀접한 연구를 주로 하는 것이 특색이라면 특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공학적인 마인드를 많이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일단 장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논문을 쓰고 특허를 낸 연구들이 바로 상품화되거나 현장에 적용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공학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은 정말 큰 장점입니다.

권용철 저희 연구실에 오시면 전력전자의 A to Z까지 모든 것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연구실의 체계가 잘 잡혀 있어서 전력전자 분야의 학술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가장 기본적인 소자의 납땜에서부터 시스템 구동까지 전 과정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일이 다소 많아 힘들 수도 있지만, 연구실을 나가는 순간 현장에서 바로 일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정재정 많은 연구들이 박사과정과 석사과정이 협력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선배들의 여러 노하우를 곁에서 직접 배울 수 있고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도 많다 보니 선후배간의 관계가 돈독하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학생들과의 소통을 중요시 하시기 때문에 학문 내외적으로 함께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Q. 대학원 생활을 하시면서 힘든 점이나 애로 사항은 없으신지요?

이학준 연구가 제일 힘들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런 것은 회사 생활이든 전문직이든 어디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 사회로 진출할 시기가 늦어진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애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술사 사회에 자리를 잡아나갈 시기인데 비교해서 아직 학생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좀 힘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의 꿈을 위해서 포기한 길이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권용철 연구실에서는 기본적으로 일이 많고 구성원에게 주어진 업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자신이 연구실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자각하고 능동적으로 임한다면 연구실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재정 처음에 연구실에 들어오면, 연구실 프로젝트 등의 업무와 자신의 학점관리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분배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실 생활에 적응하게 되면 자신만의 시간 계획을 가지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Q. 전기공학부 후배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학준 저도 학부 때는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지 않아 어떻게 조언을 해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후배님들이 한창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학부 때 공부도 중요하지만 저는 위에서 언급한 '무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동기들을 보아도 공학의 길을 걷는 친구 보다 다른 길을 찾아 떠난 친구들이 더 많습디다만, 그 친구들도 자신만의 '무언가'를 찾아서 길을 떠났고 그 '무언가'를 찾은 뒤 자신의 정체성을 갖게 되지 않았나하고 생각합니다. 여러 후배님들도 자신만의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여러 경험을 쌓으시고 만약 찾으셨다면 그 길로 일로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용철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고 하나씩 해보시길 바랍니다. 훗날에 대학 생활을 떠올리면 기억이 날 만한 무언가를 많이 만들어 두세요. 물론 학업도 게을리 하지 마시고요^^.

정재정 석사과정 1년차인 제가 후배들에게 조언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한가지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성실함과 꾸준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꾸준함을 이길 그 어떤 재주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학문이 오랜 세월을 두고 발전해 왔듯이, 성급하거나 조바심을 가지지 말고 진득하게 연구실 생활에 충실히 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옥철 현대엔지니어링 부사장



IECIE

MENTORING

PROGRAM



기꺼이 참여하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해야 합
니다. '무엇을 할까'보다는 '어떻게 할까'가 중요
합니다. 신중하게 고민하여 목표를 세웠다면, 중도
에 어렵다고 하여 포기하는 일도 없도록 해야합
니다. 어떤 일이든 쉬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루지 못할 일 또한 없습니다.

**Q. 현대 엔지니어링의 주요 사업 중 하나가 전력
플랜트 사업입니다. 전기공학부 후배들에게 강전
분야가 어떤 점에서 중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전력 산업은 국가 경제의 기간 산업으로 경제가
발전할수록,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전력 수요는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가의 전력 소요
량은 급격히 증가합니다. 2035년까지 non-OECD
국가의 전력 생산량은 연평균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지난 여름 일부 지역
의 정전사태로 혼란을 겪은 것이 전력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발전 사업은 대표적인 강전 분야로 전기의 경우
회로이론부터 발전공학, 고전압공학, 전자기학, 전
동기 응용, 송배전공학, 조명공학, 전력계통 해석
등 강전의 모든 과목이 그대로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강전 분야는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분야로서 그
어느 분야보다 신기술의 개발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을 할까’ 보다는
‘어떻게 할까’가 중요합니다.”**

**Q. 어떻게 멘토링 프로그램에 멘토로 참여하게 되
셨나요? 그리고 선배님께서 멘티들에게 가장 강조하
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저 역시 학부나 대학원을 졸업할 때 여러 가지 진로를
놓고 고민했습니다. 일찍이 자신의 진로를 정하고
나아가는 학생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 역시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앞서 고민했던 부분들,
그리고 지금까지의 경험이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에

현대엔지니어링 전력플랜트사업본부의 주 사업 분
야는 열병합, 복합, 화력 및 원자력등의 발전 사업입
니다.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링 분야가 아직 외국 선
진사에 비해 뒤져 있습니다만 현대엔지니어링의
전력 분야는 세계 20위권에서 10위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을 정도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
니다. 또한 전력플랜트 사업의 대부분이 해외 사업
입니다. 해외 사업을 EPC(Engineering, Procure-
ment, and Construction) Turn Key로 수행하면서
엔지니어링에 기반을 두어 기술력에서 타 업체보다

우월하며, 시공 부문은 현지 시공사와 협력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Q. 전기공학부 후배들이 다닐 직장으로서 엔지
니어링 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엔지니어링이란 “주어진 자원과 과학기술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유용한 유·무형의
재화를 창출하는 행위이며 이와 관련된 종합적인
시스템산업”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엔지
니어링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국가적 수출
전략사업으로 외화 획득률이 50%에 달하며 기계
장비, 에너지 개발 및 공급, 금융 등 전후방 산업과
연계되어 관련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가 큼니다.
그만큼 국가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
니다.
엔지니어링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우수한 인력의
집합체라는 것입니다. 엔지니어링 능력을 기반으로
과학적인 Project Management 능력과 활용, 유가,
국가 환경 등의 Risk Management 능력을 갖추어야
하므로 우수한 인적 자원과 지식의 축적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우수한 인재일수록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많습니다. 더욱이 엔지
니어링은 전기, 기계, 토목, 건축 등 이공계 각 분
야는 물론이고 법학, 경제학, 어학 등 인문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지 않고 협력하는 기업 문화는
다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Q. 기업가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신입사원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입사할
때 스스로 다짐했던 말을 잊지 말고 지켜 나가
십시오. 우선 여러분의 전공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가
되십시오. 그 다음에는 전공만을 고집하지 말고 여러
분야로 안목을 넓혀 나가십시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회피하지 말고 바로 부딪혀 나가십시오. 부딪치면
해결됩니다. 어렵다고 피하면 우선은 편할지 몰라도
계속 도망 다녀야 하고 결국 패배자가 될 뿐입니다.
긍정적인 사고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나의 주장을 말하기 전에 상대의 말을 경청하십시오.
또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일단 하게 되면 그 일을
좋아하십시오.



전공 하나

‘전기·정보공학부 하나되는 나들이’



준비팀

학부 09학번 정영모

안녕하세요. 이번 전공하나에서 전공하나 준비위원장을 맡아 행사를 진행했던 정영모라고 합니다. 전공하나가 끝나고 지쳐 힘들어 했던 것이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웃으면서 전공하나 후기를 쓰게 되어서 정말 기쁜 마음입니다.

몇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저에게 전공하나 행사가 눈만 감으면 떠오를 정도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매주 준비했던 시간들, 휘닉스파크에서 진행했던 시간들 모두 제겐 좋은 경험이자 추억으로 오랫동안 남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기껏해야 반 MT정도나 기획해 본 제가 400명 가까이 참가하는 전공하나라는 행사를 맡는다는 것이 너무도 큰 부담이고 걱정이었습니다. 고민이 많았지만 준비팀 친구들과 함께 방학부터 매주 회의를 하며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니 이번 행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꺼이 전공하나 준비에 힘써준 많은 후배들과 친구들에게 지금까지도 너무 고맙습니다. 또한 즐겁게 전공하나 행사에 참여해주신 많은 전기공학부 학우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지난 1년 동안 제가 맡았던 전기공학부 과장직도 이제 끝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전기공학부 학생들이 더 나은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1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다음 과장을 뽑고, 한 발자국 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 시원섭섭한 기분입니다.

더 나은 전기공학부가 되기 위해 다음 대표는 더 능력 있고 열정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비팀

학부 10학번 전호승

올해의 ‘전공하나’ 는 제게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작년까지는 단순한 참여자에 불과했다면 이번에는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주최자로서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에 전공하나 준비팀에서 레크리에이션 및 게임 준비를 맡았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먼저 준비팀을 모집한 후 8월 방학부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회의를 통해 준비팀에서 준비해야 할 일들을 정하고 팀을 나눠 그 일들을 분배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몇몇 친구들이 맡은 일은 둘째 날 낮에 진행 될 게임(열전 한마당)과 밤에 진행되는 장기자랑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7가지의 게임을 구상하여 필요한 소품을 준비하고, 메일을 통해 장기자랑 신청을 받았습니다. 비록 실제 프로그램 때는 참여율이 저조해 준비한 만큼을 다 보여주지 못해 아쉽지만, 준비부터 실천까지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제게는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번 준비과정을 통해 제가 지금까지 참여하고 즐기지만 했던 행사들이 보이지 않는 이들의 노력 덕분에 이루어진 것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공하나에서처럼 전기공학부라는 작은 사회를 굴러가게 하는 데에도 많은 생각과 노력이 필요한데 실제 사회에서는 어떠한 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의 전공 하나는 매우 다사다난했기 때문에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 것 같습니다.

작년 전공하나에서는 제가 객체였다면, 이번에는 주체였습니다. 수동적 참여자에서 주체적인 진행자로서의 역할을 해 본 것이 제게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전공하나 때는 준비팀의 수가 많이 부족해 준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년 전공하나부터는 많은 후배들이 준비팀에 참여해서 올해보다 더 짝 찬 전공하나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행사에 많은 전기공학부 구성원 분들이 참가해 주셔서 전기공학부 모두가 하나 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부 07학번 이유헌

저는 재학 중 전공하나를 3번 참가했습니다. 전공하나를 처음 참가했을 때에는 단순히 학기 중에 쉬는 기회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공 수업을 듣고, 대학원 진학에 대해 고민하게 되면서 전공하나를 대학원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공하나 프로그램 중 '대학원 연구실 소개'의 시간은 대학원에서는 어떤 수업을 듣는지, 그리고 주로 공부하는 분야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또한 공동 활동 시간에 이미 대학원에 진학한 선배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해당 분야에 진학하기 위해 필요한 수업이라든가 대학원 생활 등 대학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가며, 선배님들과도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기공학부에서 어떠한 공부를 하는지 잘 모르거나 대학원에 대해서 더욱 알고 싶으신 후배님들, 그리고 선배님들과 더 친해지고 싶으신 후배님들은 전공하나에 가면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부 10학번 나승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공하나에 참석했습니다. 전공하나에서 가장 기억에 깊이 남아 있는 것은 교수님과의 대화 시간이었습니다. 1학년 때부터 2학년이 되어 전공하나에 다시 참석할 때까지, 교수님과 앞으로의 진로나 걱정거리를 말하고 교수님께서 살아오신 이야기를 오랜 시간동안 들을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동안 상담하게 되는 지도교수님과의 면담시간에서 들을 수 없었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학부에 계시는 교수님으로서 연구의 길을 걸어온 이야기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오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일부러 교수님께 연락하고 찾아뵙지 않으면 생기기 어려운 자리가 전공하나에 참석하면서 생기게 되는 점이 전기공학부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공 하나는 모처럼 여러 선후배들과 동기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바쁜 학업과 지리적인 거리로 인해 선후배 간에 만날 기회가 적었습니다. 저는 신입생도우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신입생들을 많이 알고 있는 편이었는데도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는 어려웠는데 반갑게 모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1학기를 마치고 2학기를 시작하면서 드는 생각과 고민을 듣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전공하나에 참석해 좋은 경험을 하길 바랍니다.



작품명: 가정용 로봇 플랫폼

IDEN 팀
디자인학부 휴먼공학사 07학번

IDEN



군대에서 전역한 후 무엇인가 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한 2011년도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전기공학부 로봇동아리 SIGMA에서 몇날 며칠 밤을 새며 대회를 준비하였던 것이 가장 값진 기억으로 남습니다. 복잡한 로봇을 정해진 예산과 기한 내에 최대한 구현해 내는 경영능력, 하나의 로봇과, 하나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CAD와 AVR에 매달리는 집념과 끈기, 이 모든 것보다 더 값진 팀원들과의 관계 등등 무엇 하나 버릴 것 없었던 한해였습니다. 전기공학부에서 열린 전자전을 통해서도 이러한 값진 것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팀원들의 전공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를 반영하여 만든 것이 저희의 팀명 'IDEN'입니다. 이것은 각자의 학과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들어 졌는데 Industrial Design의 'I'와 'D', Electrical engineering의 'E', Nuclear engineering의 'N'을 가지고 와서 Identity-정체성을 상징하는 단어의 앞부분을 나타낸 것입니다. 다양한 학과가 모여서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니만큼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자라는 다짐을 담았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로봇도 새로운 개념을 가진 로봇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로봇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기존의 바퀴나 캐터필러가 달리지 않고 사람의 형태를 따라가지도 않는 공형상의 로봇으로써 스스로 사람들을 찾아 굴러다닐 수 있습니다. 단지 형태가 독특한 것만이 아니라 이 로봇에 플랫폼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사용자가 다양한 기능을 필요로 할 때 쉽게 기능부를 교체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하드웨어 적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던 프로젝트지만, 이번 전자전을 통해 공의 제어, 플랫폼과 모듈간의 통신, 모듈 센서 등등 전자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공부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SNUSAT



작품명: 3 Axis Control System for CUBESAT with Reaction Wheel

SNUSAT 팀
고분자공학사 07학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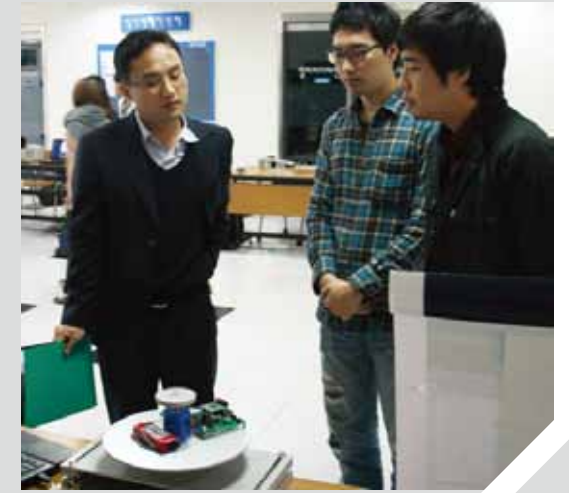
저희 팀은 전기공학부와 기계항공공학부 학생들로 구성된 SNUSAT이라는 동아리입니다. 저희 작품을 설명해드리기 전에 간단히 저희 동아리가 어떠한 것을 하는 동아리인지 설명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품이 동아리의 목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SNUSAT은 CUBESAT을 국내 대학교 최초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CUBESAT은 저궤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임무를 수행하는 초소형 인공위성(크기: 10cm~30cm)입니다. CUBESAT은 쉽고 싸게 만들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자연 과학 연구 및 통신을 위해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연구가 미비하기에 우리가 연구하여 2014년에 직접 쏘겠다는 당찬 포부를 갖고 뭉쳤습니다.

저희가 만든 "Control System with Reaction Wheel Test Bed for CUBESAT" 은 초소형 인공위성이 우주공간에서 자세

제어를 위해 사용할 제어가 실제로 지상에서 어느 정도의 유효성을 갖는지 알아보기 위한 Test Bed입니다. 우주에서는 인공위성에 가할 수 있는 외력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세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초소형 인공위성에서는 대표적으로 Reaction Wheel을 사용합니다. 내장된 Reaction Wheel을 돌림으로써 각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 인공위성의 자세가 제어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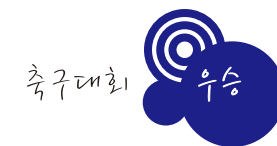
말로만 들어서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작품이지만 상당히 많은 작업을 필요로 했습니다. 마찰이 최소화 된 기계부를 설계하고, 모터를 돌리고 제어할 수 있는 Driver와 중앙처리장치 및 센서를 선정해 하나의 PCB에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앙처리장치에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중앙처리장치와 메인 컴퓨터가 통신을 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노력이 들어가긴 했지만 저희가 모든 디자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데에서 뿌듯함과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동시에 무엇보다도 재미를 느꼈습니다.

물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점이 좋은 점은 아니었습니다. 제작할 때 막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팀 내에서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들었고 출품하고 나서도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많아 심사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조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CUBESAT을 직접 발사하겠다는 큰 그림 앞에서 이러한 경험 자체가 소중한 자산이 되었고 부족했던 부분 또한 앞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른 학우 분들도 자신의 재미를 찾아 이것저것 만들어보며 전자전에 참가하여 많은 경험을 쌓으시면 좋겠습니다.



축구대회

MALD12



마일드 트웰브 팀
최성대 학사 07학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전기공학부 축구대회 우승팀 '마일드 트웰브'의 대표를 맡은 07학번 최성대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팀에 대해 소개하자면, 학교에서 항상 같이 물려다니는 6명의 친구들이 졸업 전에 추억을 하나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결성되었으며, 부족한 인원은 제가 속해 있는 '자연대 축구부' 동아리의 전기공학부 후배들로 충원하여 2010년에 창단하였습니다. 당시 팀 이름은 마일드 일레븐이었으며, 영화 '오션스 일레븐' 시리즈처럼 매년 숫자를 하나씩 올려가자는 생각으로 올해에는 마일드 트웰브로 출전했습니다.

남들이 보시기엔 '단일과에서 이벤트성으로 개최한 대회가 뭐가 그리 대수냐'하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교내에서 가장 학생 수가 많은, 그 중 대부분은 남학생들로 이루어진 전기공학부 축구대회는 이번 대회만 해도 무려 10개의 팀이 참가할 정도이고 그 참가팀들의 실력들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학부생 중심의 팀인 'FC 롤루'나 대학원생 중심의 팀인 '쏘우'와 같이 정식 동아리로 인정받은 팀들도 있고, 동문회나 각 반에서 친목을 쌓으며 수년간 명맥을 유지해 온 팀들도 있습니다.

사실 전기공학부는 학과 공부가 비교적 힘들고 학생수가 많다보니 학생들간의 친교활동이 부족한 편인데, 이번 대회를 통해서 저희 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 또한 선후배 동기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축구대회 뒷풀이 자리에서 이광복 학부장님께서 '내년부터는 참가팀 수를 대폭 늘려 더 큰 규모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축구대회 뿐만 아니라 '전공하나'와 '학생 공동 활동 지원'과 같이 학생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즉각 반영하여 편의를 제공해 주시고자 힘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학생들도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저희 마일드도 이런 지원에 힘입어 내년에도 '마일드 써틴'의 이름으로 기필코 또 다시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일드 파이팅!!





세 번째 맞이하는 정기 영화감상회! '파퍼씨네 펭귄들'

영화를 감상하신 소감은?

윤민지 학사 08'

제가 항상 다른 과 친구들에게 전기공학부에 대해서 자랑할 때 항상 언급하는 것이 '한 학기에 한 번씩 코엑스에서! 영화관을 통째로 빌려서! 무료로! 보여주는' 영화감상회입니다. 정말 어느 과에서 이런 행사를 개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항상 감개무량하며 꼬박꼬박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는 '파퍼씨네 펭귄들'이었습니다. 처음 예고편을 봤을 때부터 집 캐리 주연의 영화다보니 '어머, 이걸 꼭 봐야해.'라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학부에서 이 영화를 보여준다고 하니 너무 기뻐했습니다. 영화는 기대만큼 무척 재미있었고, 영화 시작 전에 슬리퍼가 찢어져서 맨발로 영화를 보고 맨발로 영화관을 걸어 나왔는데도 영화가 재미있어서 기분이 훈훈할 정도였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왔는데, 이 행사를 계기로 단합도 하고 참 좋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대학원에 가서도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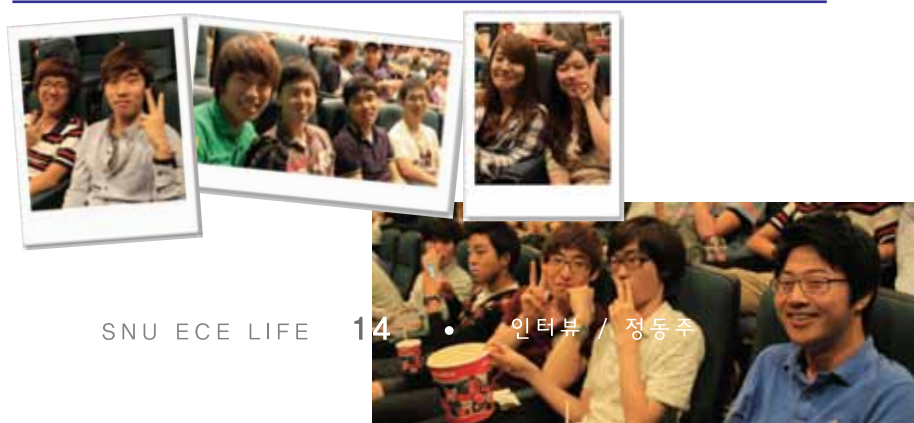
윤민지 학사 08'

서민원 석사 10'

9월 8일 전기공학부 학생들을 위한 영화감상회가 있었습니다. 매일 실험과 시험에 치여 문화 생활을 하는 데 시간을 내기 힘든 학생들을 위한 감상회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감상회에 연구실 구성원 전체가 교수님의 지시로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구실이 그러한 연구실들 중 하나였습니다. 연구실 회식도 할 겸 그리고 영화도 볼 겸해서 연구실 전체(라고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가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볼 때는 파퍼씨와 비서의 말장난과 펭귄들의 행동에 많이 웃었고, 나올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나왔지만 이렇게 글을 쓰면서 보니 좋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연구실 생활에 있어 신입생은 중요합니다. 많은 시간 동안 함께 하며 같은 꿈을 가지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다르기도 하지만 최소한 학문적으로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물론 너무도 다양한 사람이 모이니 서로간 안 맞는 점이 없을 수는 없으나, '파퍼씨네 펭귄들'의 펭귄들처럼 서로가 꿈을 북돋아 주고 힘든 일을 극복하는 연구실 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민원 석사 10'



석사우수논문상 수상 후기



서정훈 석사 09' 사이버 물리 시스템 연구실(CPSLAB)

2년 전 석사과정을 시작하면서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는데 이렇게 우수 논문상을 받게 되어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2년 동안 부족한 저를 지도해주신 오성희 교수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으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교수님의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논문으로 선정해 주신 여러 교수님과 연구실 친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의 논문 연구 주제는 다수의 로봇을 이용하여 실내에서 적합하고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었는데 기존의 알고리즘과 비교해서 좀 더 정확한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지 않았던 우수 논문상을 수상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저희 연구실은 제가 석사 입학과 동시에 생긴 신생 연구실입니다. 처음 왔을 때는 책상 하나도 없이 시작한 연구실인데 지금은 저를 포함한 박사과정생도 있고 여러 명의 석사 과정 및 학부과정의 친구들도 있습니다. 지금이야 서로 모여 토론도 하면서 연구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항상 교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열정적으로 저희를 지도해 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2년 동안의 석사 생활을 돌이켜 보면 아쉬운 순간들도 많았지만 즐거웠던 순간들 또한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더 빨리 그리고 더 좋은 결과를 내지 않았을까'하는 미련도 남고 더 열심히 했다면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반면에 연구를 하면서 잘 풀리지 않은 문제에 봉착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서 문제를 해결했을 때에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문제가 잘 풀리지 않더라도 잘 풀렸을 때의 순간을 떠올린다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저는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석사 때의 연구를 이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연구도 열심히 하고 석사 과정의 친구들에게 유용한 조언도 하면서 올바른 연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상 축하드립니다!



전공 학습 도우미



전공학습도우미 제도는 전기공학부에서 개설하는 일부 전공과목에 대해 전공학습도우미를 선발하여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1학기에는 컴퓨터개론 및 실습 / 공학수학 2 / 회로이론 1 / 전자회로 1을, 2학기에는 공학수학 1 / 회로이론 2 / 전자장 1 / 논리설계 및 실험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회당 2시간씩, 1주일에 2회에 걸쳐 운영하고 있는데, 2011학년도 1학기부터 1주일 중 주 1회는 기존과 같이 해동 학술정보실 내 세미나실에서 개인 대상지도를, 주 1회는 강의실 또는 해동학술정보실 내 세미나실에서 다수 학생 대상 강의지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전공학습도우미로 활동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제도를 알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학생들은 한정되어 있으며, 대부분 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알고 있다 하더라도 모르는 학생에게 질문을 한다는 사실에서 오는 약간의 부끄러움으로 인해 이용하는 학생의 수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공학습도우미들은 어느 학생이 어느 질문을 하든지 친절하게 답변해드릴 준비가 되어있고, 많은 학생이 올수록 더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다 하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전공학습도우미 제도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이용해주시길 바라고, 건의사항이나 불편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전공학습도우미나 학부사무실에 말씀해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1학년도 2학기 전공 학습 도우미

공학수학1 도우미 학부 10학번 하현석

회로이론2 도우미 학부 09학번 정태훈

전자장1 도우미 학부 09학번 박현수

논리설계 및 실험 도우미 학부 06학번 서주현



교환학생 수기

학부 10학번 이필규



Cornell University를 다녀와서...

안녕하세요! 저는 반년동안(2011년 봄학기, 여름학기) 미국 뉴욕에 있는 Cornell University로 방문학생을 다녀온 10학번 이필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결혼을 하신 후, 아버지는 MBA박사과정, 어머니는 식품영양학 석사과정을 이곳 Cornell University에서 마치셨습니다. 그렇게 결혼 후 함께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다 그곳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많이 어렸던 시기라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부모님께서 20대 때 공부를 하였고, 제가 태어난 곳으로 이렇게 청년이 되어 다시 찾아간다는 것은 저에게 소중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Cornell의 자연, 스포츠]

이곳 Cornell University가 있는 Ithaca라는 도시는 New York State에 있지만 New York City와는 차로 4시간 정도 떨어진, 산과 계곡이 많은 전원예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덕에 많은 학생들이 자연과 더불어 여가 시간을 보냅니다. 계곡에서 다이빙을 안전하게 할수 있는 점이 특징인 Gorge Jumping과 함께 차로 몇 분 거리 내에 있는 미국 Finger Lake 중 하나의 Cayuga Lake에선 수영, 윈드서핑, 수상스키, 조정 등의 다양한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었고, 체육과목에는 구기종목은 물론 동굴탐험, 승마, 나무오르기 등의 색다른 수업이 있었습니다.

[Slope Day]

이곳 Cornell University 역시 학교 축제가 있었습니다. 학교 서쪽에 크고 넓은 언덕이 있는데, 매년 4월말, 기말고사가 시작하는 전 주 토요일, 학생 모두가 그 언덕에 나와 공연과 각종행사를 즐기는 'Slope Day'란 날이었습니다. 졸업생들뿐 아니라 주변의 여러 대학교에서 놀러올 만큼 크고 재밌는 축제였습니다. 미국의 유명 팝, 힙합가수 등이 공연을 하고, 각종 음식과 이벤트 등을 즐기며 미국의 대학교 축제 문화도 경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음주와 가무가 어우러진 문화는 세계 어디서나 비슷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Research Assistant]

여름 방학 기간동안 Biomedical Science Department의 한 연구실에서 Research인턴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연구실에서는 세포 분석 기술인 Optical Mapping을 이용하여 동물들의 심장을 연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간의 각종 심장질환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었습니다. 전기공학과의 연구실은 아니었지만, 각종 데이터 코딩, 심장분석에 필요한 회로 등 전기공학 분야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제가 할 수 있는 도움도 드리고, 생명과학에 대해 공부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Cornell 속 한국인]

이곳 Cornell University에는 한국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거의 모든 과에 학부, 석사, 박사, 교수님까지 많은 한국분들이 계셨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우리나라 전통 사물놀이를 세계에 알리는 '심타(心打)'라는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잠시동안 활동을 했지만, 이렇게 먼 곳의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우리의 것을 알린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Outro]

Cornell University가 있는 도시 Ithaca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드넓고 새파란 하늘입니다. 높은 건물과 인구밀집도가 높아 하늘을 거의 못보고 살던 서울의 생활과는 달리,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받치는 넓고 예쁜 하늘이 기억 속에 오래 남습니다.

이처럼 익숙하던 환경에서 벗어나 다른 환경과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많은 준비를 한다고 해도 다 얻지 못하는 것이 있는 반면, 전혀 준비도 생각도 못했던 것을 얻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넓은 세계를 보고 돌아와 저의 미래를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를 무대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서울 공대, 그중에서도 전기공학부 학우들 역시 대한민국,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성장과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믿으며 후기를 마칩니다.

한국전력기술 장학금 수여자 인터뷰

Power Engineering School Camp란?

Power Engineering School Camp는 한국전력기술(주)의 한기인재교육개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원자력, 화력 및 신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관련 지식을 전달하고 실무기술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학부에서 전력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는 더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캠프 교육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참가자에게는 장학금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Interview



김은석 학사 07'

1 어떻게 이 캠프에 참가하게 되셨나요?

방학 때 딱히 할 일이 없던 차에 어느 후배를 통해 2개 학기 장학금을 지급해 준다는 여름캠프를 알게 됐습니다. 단, 장학금은 성적평가 상위 몇 명에게만 지급하는 거였죠. 소식을 접했을 때 이미 신청 마감까지 고작 1시간밖에 남지 않아서 포기하려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급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학교별로 공과대학 전체에서 2명씩 선발하는 거라 가장 늦게 신청을 한 저는 선발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지원자가 적어서 선발되었습니다. 학우 여러분들 장학금 공지를 항상 눈여겨보세요!

2 캠프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Power Engineering School Camp 1기는 5박6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초반에는 한전기술교육센터에서 수업을 했는데, 주로 원자력, 화력 발전소의 설계와 관련된 기기, 계통, 법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수업 자료가 230쪽 가량 되는데, 이것을 3일간 배우고 5일차에 시험을 보다보니 암기력이 좋아야겠더군요. 수업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에 대하여 발표자료를 만들어 조별로 발표하는 팀 프로젝트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밤에 먹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참가자들끼리 많이 즐길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공부하는 방식이 따로 있어 공부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본인이 장학금을 꼭 원한다면 스스로 분위기를 만들어 공부해야 합니다.

3 한국전력기술 장학금의 장점도 소개해주세요.

캠프에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은 회사가 정말 잘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통비 지원도 꼼꼼하게 해주고 캠프가 끝난 뒤에도 회사에서 모임을 열어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줍니다. 제가 간 캠프에서는 3일간의 수업이 끝나고 고리, 삼천포 등의 원자력, 화력 발전소 견학을 갔고 견학 장소에서 꼭 그 지역의 특산물을 먹고 왔습니다. 마지막 수료식 때는 고급 중식 레스토랑에 가기도 했어요. 전력산업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캠프답게 참가자들이 즐길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줍니다. 비록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캠프에 참가하면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1월에 열린 2기 캠프는 기간도 9박 10일로 늘었고 장학금 수혜자도 2개 학기 2명, 1개 학기 8명으로 늘었습니다. 3기 캠프에 꼭 참가해보세요.

2011.07.18. ~ 2011.07.23.
1기 Power Engineering
School Summer Camp



김정식 특지 장학금 · 고영테크놀러지 장학금

지원해 보세요!

1 김정식 특지 장학금

김정식 특지 장학금은 전자공학과 48학번 동문이신 대덕전자 김정식 회장님께서 2011년부터 우리 학부 가계곤란 학부생들에게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하면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장학금 종류는 등록금 지원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의 지원이 있으며, 2011년 장학생 현황은 등록금 11명, 학업장려금 10명입니다. 장학금 신청 시기는 1학기 1월 하순, 2학기 7월 하순으로 1년에 2회 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있으며, 장학생 선발인원은 학기별 약 10명(등록금 및 학업장려금)내외입니다.

2 고영테크놀러지 장학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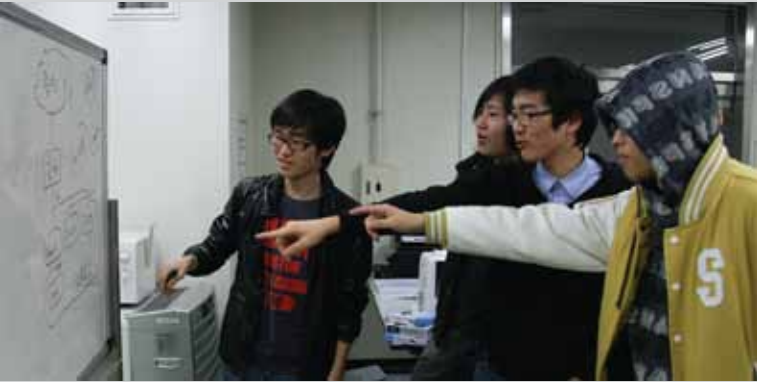
고영테크놀러지 장학금은 전기공학과 76학번 동문이신 고영테크놀러지 고광일 대표께서 가계 곤란 학부생이 안정적으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학업장려금 성격의 장학금입니다. 장학금 지원 시기는 2011년 2학기부터 2012년 1학기까지이며, 학부생 1명에게 학기별 학업장려금 250만원을 지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2011.09.28.
전자통신연구후원재단
(김정식특지장학금) 수여식



시설 홍보



Motorola Lab.

전기공학부 전산실은 전기공학부 구성원들이 컴퓨터 관련 장비들을 편리하게 이용하여 학교생활을 잘 해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업무로서 205호에 36대, 207호에 95대의 PC를 관리합니다. PC에 고장이 났을 때 복구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PC를 관리하면서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을 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eenet.snu.ac.kr, ee.snu.ac.kr, eei.snu.ac.kr을 관리하고, 실습 수업에 필요한 실습용 서버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동학술정보실, 실험실 등의 학부 시설 출입과 301동, 302동 건물 출입 등록도 저희가 맡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관리자 지원 홍보

일단 관리자가 되면 관리자실에 24시간 언제든지 와서 상주할 공간과 관리자 전용의 고성능 컴퓨터가 한 대씩 생깁니다. 그리고 숙면을 취할 안락한 침대까지 있습니다. 컴퓨터에 관심이 있고, 학부 때 독특한 경험을 해보고 싶은 분들은 관리자에 지원해보신다면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작은 서버로부터 조금 더 큰 서버까지 다룰 기회가 많습니다. 이번에 구축한 가장 작은 DHCP서버부터 가장 큰 컴퓨터 복구 자동화 서버까지 다양한 서버들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물려져 내려오던, 전산실 사용자들도 익숙할 굴적굴적한 서버들을 자주 만지고 접할 기회가 많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촉박하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느긋하게 큰 그림이 그려질 시간도 충분하기 때문에 겁먹지 않고 차근차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업무 특성상 학부 사무실 직원 분들이나 몇몇 교수님들을 만나 볼 기회도 꽤 있고 행정 서류도 자주 오가기 때문에, 학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엿볼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이외에도 글로 쓰기 어려운 좋은 점이 정말 많으니 직접 경험해 보고 싶으시다면 2013학년도 관리자에 지원하세요.



학부 10학번
김다현

서버의 유지 보수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관리자 업무 중에서 리눅스 서버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개념 및 실습 강좌에서 사용하는 서버들, 전기공학부의 구성원들의 커뮤니티인 eei.snu.ac.kr 등 전기공학부 구성원을 위한 서비스들을 리눅스로 제공하고 이것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했을 때, 무턱대고 리눅스를 좀 만져봤다고 말한 것이 수많은 리눅스 서버를 관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버를 관리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밤도 많이 새었습니다. 사용자 분들이 어떤 서비스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원인을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른 적도 있었고 문제를 해결한다고 나섰다가 오히려 더 고장 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관리자 선배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한 번 소동이 지나가면 서버 관리에 대해 더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서버의 유지 보수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9월에 50대 정도의 새 컴퓨터를 들여놓게 되었는데, 컴퓨터 한 대씩 이미지를 씌우는 기존의 작업이 매우 번거로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친구들과 몇 주간의 노력 끝에 수십 대의 컴퓨터를 동시에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잘 돌아가는 것을 확인했을 때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부 10학번
조유승

회사생활을 미리 예습 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 저는 관리자 지원 시기를 놓쳐서 좀 늦게 4월에 추가 합격한 케이스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서지훈 형에게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월에 처음 들어왔을 때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좀 두렵기도 했는데, '모르면 얼굴에 철판을 깔고 배우자'라는 생각으로 형들이나 이미 합격해있는 동기들을 참 많이 괴롭혔습니다. 아직 배운 것은 적지만 앞으로도 계속 관리자를 하면서 배울 생각입니다.

제가 관리자를 하면서 주로 맡은 업무가 행정관련 업무입니다.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면 학부 행정실 선생님과 전산실 담당 교수님이신 심규석 교수님을 많이 뵈러 다녔습니다. 이것저것 서류를 작성하고 교수님의 사인을 받으러 다니고 하다보니 회사생활을 미리 예습 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또한, 교수님과 행정실 선생님들을 자주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친해질 수 있는 것도 관리자를 하면서 참 좋았던 부분입니다.



김영빈 학사 05학번

“ 아직까지 인터뷰나 디자인 같은 작업들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는데 2012년 상반기 ECE LIFE를 무사히 발간할 수 있어서 뿌듯합니다. 인터뷰를 하고 사진 촬영, 자료 정리 후 이를 소식지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여러가지로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공하나를 취재하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알찬 프로그램들이 많았고 마침 날씨도 좋아서 2박3일 동안 전기공학부인들이 함께 호흡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잘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전공하나에 참가하지 못했던 학우들이나 신입생들도 소식지를 통해서 전공하나를 느낄 수 있고 이를 통해 전공하나 참여율도 높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작업을 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식지를 만들어 나가는데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신 장지희, 김새미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인터뷰를 해주신 성광모, 설승기 교수님과 열성적으로 모뎀 홍보를 해주신 모뎀관리자 일동, 교환학생 이야기를 재미있게 잘 풀어내 준 이필규 학생에게도 감사드립니다. ”

“

저는 이제 2월말에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홍보도우미를 세 번이나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했을 때는 지금처럼 형태가 갖춰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뉴스레터 제작에 참여했다고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2011년 봄학기, 가을학기에 다시 두 번 홍보도우미를 하면서 여러 교수님들, 동문분들을 뵈고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또 많이 해보지 못했던 작업들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학부의 학생들은 생각할 수 있는 진로가 참 많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학기 중에는 학교에 열심히 다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쓸 수가 없는 학생들도 많고 모든 대학생들이 가지는 고민들을 우리 학부의 학생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 학부에서 노력하는 부분이 많음을 이 뉴스레터를 통해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저도 학부의 행사, 선배님들의 소식 등을 홍보도우미 일을 하면서 들었던 때가 많습니다. 스무 쪽 가량의 뉴스레터를 채울 수 있는 학부가 우리 학교에서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뉴스레터를 인쇄물로 보시거나 학부 홈페이지를 통해 보시면 학부생활에 꼭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뉴스레터 제작에 참여해주신 교수님들, 동문분들, 행정실의 장지희, 김새미 선생님, 같이 홍보도우미로 일한 영빈이 형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정동주 학사 08학번

● 08.24. 김정식 회장님 장학금 수여식



● 08.31. 이장규 교수님 본부장정년식



● 09.02. 외국인학생간담회



● 09.02. 수업조교 OT



● 09.08. 영화 감상회



● 09.22. 학생센터특강



● 09.22. 전공하나 연구실 설명회



● 10.07. 명예교수강담회



● 11.03. 김용권 교수님 교육상 수상



● 11.24. LG조준호 대표이사님 강연



● 12.20. 연탄배달 봉사활동

2011年 8月
~
2011年 12月